

특별기획

김제새일센터,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특강 가져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일동)에서는 지난 14일 관내 (주)지엠에스 바이오 교육장에서 사업주와 관리자 및 2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특강을 가졌다.

김제새일센터의 기업체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영소장 강의로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소통과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발생하는 조직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과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목적을 뒀다.

특히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엠에스바이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인식개선과 여성근로자의 사기 함양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원스톱 취업 지원은 물론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기업체 협력망 구축 직업교육실습 집단 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 인턴제 등 기업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여성친화기업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양, 공직기강 특별점검

부안해양(서장 조성철)이 일선 해양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려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부안해양은 이번 점검은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에 따른 실질적 운영 실태, 토·일요일 등 공휴일 각급 지휘관 근무체계,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실선 여부 등 비상 상황관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안 해양은 풍랑주의보 및 저시정 등 기상불량시 선박 출입 항 통제·계도 여부와 사고 다발 해역에서 경비함정 적정 순찰활동 여부 음주운항 정밀초과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실태, 출·입항 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여부,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실시 여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통제 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자부동, 자체사고 예방 근무실태,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새일센터,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특강 가져

김제새일센터의 기업체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영소장 강의로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소통과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발생하는 조직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과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목적을 뒀다.

특히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엠에스바이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인식개선과 여성근로자의 사기 함양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안해양, 공직기강 특별점검

부안해양(서장 조성철)이 일선 해양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려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부안해양은 이번 점검은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에 따른 실질적 운영 실태, 토·일요일 등 공휴일 각급 지휘관 근무체계,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실선 여부 등 비상 상황관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안 해양은 풍랑주의보 및 저시정 등 기상불량시 선박 출입 항 통제·계도 여부와 사고 다발 해역에서 경비함정 적정 순찰활동 여부 음주운항 정밀초과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실태, 출·입항 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여부,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실시 여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통제 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자부동, 자체사고 예방 근무실태,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새일센터,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특강 가져

김제새일센터의 기업체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영소장 강의로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소통과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발생하는 조직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과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목적을 뒀다.

특히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엠에스바이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인식개선과 여성근로자의 사기 함양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안해양, 공직기강 특별점검

부안해양(서장 조성철)이 일선 해양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려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부안해양은 이번 점검은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에 따른 실질적 운영 실태, 토·일요일 등 공휴일 각급 지휘관 근무체계,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실선 여부 등 비상 상황관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안 해양은 풍랑주의보 및 저시정 등 기상불량시 선박 출입 항 통제·계도 여부와 사고 다발 해역에서 경비함정 적정 순찰활동 여부 음주운항 정밀초과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실태, 출·입항 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여부,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실시 여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통제 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자부동, 자체사고 예방 근무실태,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새일센터,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특강 가져

김제새일센터의 기업체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영소장 강의로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소통과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발생하는 조직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과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목적을 뒀다.

특히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엠에스바이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인식개선과 여성근로자의 사기 함양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안해양, 공직기강 특별점검

부안해양(서장 조성철)이 일선 해양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려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부안해양은 이번 점검은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에 따른 실질적 운영 실태, 토·일요일 등 공휴일 각급 지휘관 근무체계,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실선 여부 등 비상 상황관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안 해양은 풍랑주의보 및 저시정 등 기상불량시 선박 출입 항 통제·계도 여부와 사고 다발 해역에서 경비함정 적정 순찰활동 여부 음주운항 정밀초과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실태, 출·입항 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여부,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실시 여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통제 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자부동, 자체사고 예방 근무실태,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의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정읍시 '300거리 프로젝트' 추진

국토교통부 주관 '201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

정읍시의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초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준비한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는 쇠퇴한 원도심 3개 거리(새암로 우안태평로, 생화차커리)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다.

아간조명 설치와 간판 정비, 골목한

경 개선, 도심공원 조성, 도로정비사업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시는 사업추진과 관련,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적극 참여했고 협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실을 거뒀고 지역주민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시는 시민 참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 청년네트' 개최와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연구 기능을 갖춘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도시재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하여 참여 주체인 주민 공동체 역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문화재 활용사업 3건 선정

향교·생생문화재·전통산사 등... 국비 1억원 확보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13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향교·서원 생생문화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공모하여 총 3건이 선정되어 국비 1억여원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3건에 당선된 경우는 김제시가 유일하다.

서원·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선비문화의 중심지인 문화도시 김제에서 김제향교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동소학 어린이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어린

이 대상 학습프로그램으로 향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은 생생한 박물관을 통해 체험이라는 주제로 사적 제 11호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정된 평야에서 이루어지는 농경문화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국비 62호 미륵전을 중심으로 금산사에서 나를 깨치다라는 주제로 내년 완공되는 금산사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1박2일 산사체험 및 금산사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

획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김제시의 잠재된 문화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역사교육의 기회를, 침체되어 있는 김제시 관광산업에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문화홍보총괄팀장은 "앞으로도 문화재를 보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학생들에게도 현장에서의 생생한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예비지구 평가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비, 공모대상 예비지구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갖고 최종 예비지구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과 마을(지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4개 읍면(신태인읍, 칠보면, 북면, 감곡면)이, 창조작마을 만들기에 4개 마을(태인분동 신내 백필, 신내 신기, 신외 상두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지역 약 100여명의 추진

위원과 주민,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 및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작성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가졌다.

심사 결과 최종 예비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구로 신태인읍과 북면이 창조작마을 지구로는 태인분동과 신내 백필, 신외 상두가 선정됐다.

시는 이날부터 주민과 컨설팅과 행정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개발 전문가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공모 준비

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를 70% 확보해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시책으로, 그동안 창조작마을 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에 힘써온 만큼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읍농업과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신규 공모사업은 2017년 1월 사업신청 후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스포츠파크서 소·공·동 노사 체육문화제 개최

부안군 소·공·동 노사 체육문화제가 지난 15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김종규 부안군수와 오세용 부안 군의회 의장, 황창호 부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900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리가 화합하면 부안군이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살펴보면, 지역가수·

각설이·그룹가수 공연 등 문화공연과 지네발 릴레이·에드빌론 릴레이·소망 탐 샹기·대형바턴계주 등 직원 간 레크레이션 게임,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휴일을 이용해 전 직원이 막힌 사무실이 아른 아른하라는 공간에 모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유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서로 즐겁게 어울리고 화합하는 자리로 큰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 직원들은 승쾌를 떠나 그동안 업무수행에 쌓여있던 피로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군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농어촌공 물관리자동화 시스템 확대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2001년부터 양수장과 주요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물 37개소에 물관리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연말까지 양수장 2개소에 추가로 도입하여,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관리자동화(TM/TC) 시스템은 용수시설물을 적정하게 개선하고 기계화 및 전 동화를 병행한 자동화시스템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원격감시제어 관리에 따른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 ▲배수장의 적기가동에 의한 재해예방 및 경감 ▲용수절약에 의한 다목적 용수 이용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물관리 기술의 선진화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김병수 지사장(사진)은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 및 물관리 전문가판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행복한 노후, 시니어클럽과 함께 해요"

김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문화동행행사료

김제시니어클럽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그 동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참여자 장기자랑 및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해 나병문 시의회의장, 사나눔 세상 황일태 대표, 김제시니어클럽 운영위원과 참여자 어르신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시니어클럽과 함께 해요"라는 슬로건하에 개막행사 및 축하공연(1부)과 어울림한마당(2부)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개막행사에서는 개회식 및 축하공연 등, 어울림한마당에서는 사업단별 참여자 어르신들의 노래공연, 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이며 참석자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제시니어클럽(관장 김용규)은 지역노인일자리를 담당기관으로서 2011년 8월에 설립되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취업형·전문서비스형, 공익활동, 고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17개 사업 799여명이 참여자로 활동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나병문 시의회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문화동행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공동체 미소거리축제 개최

22일, 28개 미소거리상가 참여 체험행사 마련

정읍시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6회 공동체 미소거리축제가 오는 22~ 23일(2일 간) 내장상동 미소거리(롯데슈퍼 ~ GS25 편의점 구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공동체협의회와 미소거리상가변영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며, 정읍시 민청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와 내장상동 미소거리상가가 함께 준비한다.

축제에는 지역공동체 45개 팀과 미소거리상가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3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공동체상품 판매와 각종 체험행사, 그리고 이벤트가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공간이자 많은 시민들이 체험을 함께하며 흥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